



사업 개요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를 조사하기 위한 현지조사는 몽골의 동부, 남부(고비 사막), 중부 지역에서 실시되었다.



보유자 가정을 방문한 현지조사단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진흥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과 몽골의 유네스코 프로그램 ‘인간 문화재’ 제도 이행에 관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심포지엄 결과 정부기관, 유산 보유자, 관련 단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권고안이 마련되었다.

워크숍 결과 무형문화유산 전수 임시 교육 모듈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정부 공무원, 연구진, 유산 보유자 간 효과적인 협력을 보장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전반적인 보호에 관한 이들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유지, 개발하기 위한 사업과 정책 수행을 위한 협력 활동을 강화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2009년 7월 몽골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몽골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과 ‘긴급보호 목록’을 승인했다. 또한, 2009년 10월 교육문화과학부 장관은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및 등록 규정,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회원 구성,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 발굴 국가협의회 규정’을 승인했다.



심포지엄 장면



워크숍 참가중인
정부 사무관들



비엘지(몸춤) 연행자와
전수자 어린이들



보유자 기술시연
워크숍에서
서사시 연주자
Baldandorj가
'Altain magtaal'를
부르는 장면



보유자 기술시연
워크숍에서
참가 연주자
Chuluunbaatar 가
경주마 노래를
부르는 장면



워크숍에 참가중인
몽골 무형유산분야
전문가, 연구자, 사무관들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제도 구축을 위한
워크숍 단체사진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임시 목록은 몽골의 무형문화유산 및 보유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기반해 관련 전문가, 연구자, 기타 해당 분야 주요 인사들이 작성했다.



워크숍 참가자들

문화유산 연구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연구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몽골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가이드북 초안을 준비했다. 본 가이드북은 프로젝트 전체 활동을 소개하는 기본서로서 청소년과 어린이, 국내 및 국외 연구진과 학자, 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 일반국민, 기타 관련인과 관심 있는 사람 등 다양한 단체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 가이드북 출판은 프로젝트 다음 단계에서 수행할 예정이며, 현재 추가적인 설명, 검토, 부연적 내용의 집필이 진행 중이다.



보유자 가정을 방문한 현지조사단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선정에 대한 전국적인 공지는 몽골 내 다양한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수행한 연구팀과 대중매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과 의의, 국제, 지역, 국내적 수준에서 채택 및 이행된 보호조치, 노력, 활동, 기타 관련 사안에 대한 소개, 설명, 인터뷰와 함께 발표되었다.